



갈릴리 호수가  
타브가 성당 바닥의  
오병이어 모자이크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2 열왕 4,42-44

[화답송] ..... 시편 145(144), 10-11.15-16.17-18(◎16)



(후렴)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 - 어 저희를은혜로 채워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 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제 2 독서] ..... 에페 4,1-6

[복음환호송] ..... 루가 7,16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요한 6,1-15

[성가안내]

- 입당성가 [4] 찬양하라
- 봉헌성가 [221] 받아 주소서
- 성체성가 [181] 신비로운 몸과 피
- 파견성가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 사 봉 헌

영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묘 전마사자 카타리나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윤은미 유스티나 김영 보나벤투라 김영우 요셉/강건대 마리아 부부	이상홍 스테파노 민완준, 민덕미 양미숙 마리아 장준영 미카엘 김승애 김지영 유스티나
생미사	봉헌
조후연 아고보 신부 황경옥 안 영옥 분다 (영.육 건강 위해) 이지훈 아네스 김기례 레지나 김순환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김동희 헬레나 이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 소화데레사	가족 황경숙 수산나 이경자 율리안나 이지연 안나 레지나 익명 은총의 샘 꾸리아 은총의 샘 꾸리아 은총의 샘 꾸리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7월 25일	이지훈 아네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양미숙 마리아
8월 1일	백이백 아오스딩	박기목 알버트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되돌아 간다는 가정 아래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신앙생활과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 347-882-2244

● 예비자 교리반 시작 공지입니다.

- 교리 시작 : 2021. 9. 26. 주일 미사 후
- 신 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내 주세요.
- 세례 예정 : 2022년 부활 대축일

● “선택” 피정 공지입니다.

- 일 시 : 2021. 9. 4 ~2021. 9. 6
- 장 소 : 뉴튼 수도원
- 신청기한 : 2021. 7. 15 ~ 2021. 7. 31
- 신청방법 : [choicenynj.com](http://choicenynj.com)
- 첨 가 비 : \$250.00
- 대 상 : 1988-1999년생 미혼 남녀  
(한국어권과 영어권 선착순 25명)
- 참가문의 : [choicenynj@gmail.com](mailto:choicenynj@gmail.com)

\* COVID-19로 인해 전원 독방(Single Room) 사용 예정입니다.

● “신명” 풍물반 모임 있습니다.

- 오늘, 2021. 7. 25 오후 2시 프란치스 룸 (지하1층)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http://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중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울뜨레아	1 <sup>st</sup> 주일 11:00 am	교육관 4
학부모회	1 <sup>st</sup> 주일 11:00 am	교육관 3
요셉회	2 <sup>nd</sup>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모회	2 <sup>nd</sup> 주일 11:00 am	교육관 4
연령회	2 <sup>nd</sup> 주일 11:00 am	Lower Church
꾸리아	3 <sup>rd</sup> 주일 11:00 am	Lower Church
양업회	3 <sup>rd</sup>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김동희(헬레나)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이정주(소화데레사) |
| 김용기(요셉)       | 정창동(폴리나)   |
| 지군자(스테파니)     | 고종호(마태오)   |
| 홍봉운(바오로)      | 진정은(마리아)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노의선        |
| 이병국 (요한)      | 이진자(세실리아)  |

[2021년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icloud.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 오늘의 복음 묵상

(요한 6,1-15 )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음식을 두고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이 실례 같지만,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이른바 “맛집 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저마다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가톨릭 신자라면 적어도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통하여 두 가지 모습의 빵을 떠올려 봅시다. 한 가지는,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저 혼자 숨기고 먹는 빵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 앞에 내어 놓은 아이의 빵입니다. 빵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지만, 그 빵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초라한 빵이 아무 소용없다는 포기과 절망은, 다만 살기 위해서 먹는 빵일 뿐입니다. 반면에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조심스레 내어 놓은 아이의 빵은 작은 봉헌임에도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깃든 빵입니다. 그 빵을 예수님께서서는 모두를 살리는 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빵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빵을 먹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기 위하여 먹는 빵이 아니고, 그것만 먹고 살아갈 수도 없는 빵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죽기 위해서 먹는 빵입니다. 내어놓고, 봉헌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먹는 빵입니다. 그 빵은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선택하게 이끌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 성체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택하였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먹는 것조차도 또한 누군가를 살리고자 먹는 것임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 최 종훈 토마스 신부 -

기후 위기에 대한  
가톨릭교회 대응과 7년 여정

가톨릭교회는 오래 전부터 지구 환경 파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경고해 왔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생태계와 환경 파괴에 대한 신앙인들의 책무를 지적한 것은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로부터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담화에서 “땅과 바다, 기후, 식물계와 동물계에 가해지는 심각한 파괴의 위험은 모든 나라,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게 현대 문명의 전형적인 소비주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후 교회는 기후 변화 문제를 비롯한 생태계 위기에 대한 책임감이 신앙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를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신앙적 소명으로 제시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반포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교회 최초의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교회 환경 운동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피조물의 본래 모습을 손상한 인간의 행위는 죄악임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분리 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통합적 생태론을 강조했다. 이후 교회는 회칙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때마침 전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이 인지된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교회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세계가톨릭 기후 행동의 출범으로 구체화 됐다. 회칙 반포에 앞선 2015년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필리핀 순방에 즈음해 출범한 세계 가톨릭 기후 행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0여 개 이상의 단체와 100만 명에 이르는 가톨릭 신자와 환경 단체들이 소속돼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가톨릭기후행동이 40여개 단체와 40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0년 1월 출범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은 2020년은 교회 환경 운동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2020년 5월 24일부터 이듬해인 2021년 5월 24일까지 ‘찬미 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고, 이후 7년 동안 무너진 지구 생태계와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집중적인 여정에 나섰다.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노력은 이제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 가톨릭 신문 2021. 7. 13 -